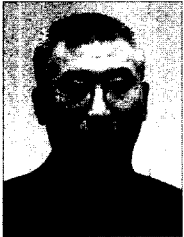


구제역 방역 추진현황과 재발방지 방역대책



김도순 수의사무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방역과)

1. 머리말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 축산환경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거나 소비자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요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질병의 예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근래의 구제역·가금인플루엔자 발생사례와 같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적인 공동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중국·몽골 등 우리나라의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위협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이들 국가와 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인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몽골,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유입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입 자유화 이후 DDA 협상진행, FTA 협정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농촌에 대한 투자·개선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전업농 위주로 변모하여 전업농가 수가 현저하게 늘어난 상황이며, 사육규모 면에서도 점차 기업화·대규모화, 밀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여건 개선으로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축산업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주의의 사실이다.

'00년, '02년도 구제역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축산식품 자체를 외면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축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수의분야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질병 발생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예찰활동 및 차단방역의 권장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방역의 기본주체인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제고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어 구제역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구제역 개요 및 주요 방역추진 현황

가. 구제역이란?

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시슴 및 야생반추동물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원인체 : FMD 바이러스) 가축전염병이며, 감염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질병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이다.

나. 구제역 주요 방역 추진현황

1) 국내 구제역 발생 및 청정화 추진상황

'00. 3. 24~4. 16일(23일간) 사이 경기 파주·화성·용인과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 의 15개 소사육농장에서(소 81두: 한우 62두, 젖소 19두) 구제역이 발생하여 감염가축의 살처분·매몰, 전파·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병행하였으며, 4. 16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이 종식상태가 유지되어 '01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 사이(52일간) 경기 안성·용인·평택과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에서 16개 농장(소 1, 돼지 15)에서 다시 발생하였으나,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의 우제류가축을 살처분·매몰하는 등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한 결과 '02. 11.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범정부차원의 방역활동과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없이 청정국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2)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00년 국내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수입건초", "해외여행객"으로 추정되며, 바람(황사)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02년에 발생한 구제역 역학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입 요인은 발생농장(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지역 농가의 해외여행을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역 유입 위험요인 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여 검역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X-ray를 이용한 검색과 의심물품에 대하여 검역관이 직접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색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검역탐지견을 중국·몽골·러시아 등 위험노선과 외국인산업연수생 입국시 집중 투입하였으며, 입국시 해외여행객의 신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조사료에 대한 소독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국내 도착시에 2차 소독하는 등 이중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구제역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컨테이너, 국내에 나포되거나 또는 피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소독하는 등 공·항만에서의 현장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일선 세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수 검역물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사·항공사의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경검역에서 효과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PDP 홍보판을 새로 설치하고, 전용전광판을 확대 설치(5대 → 9대)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만에서는 리후렛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특별대책기간, 연말연시·명절연휴 전

후에는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내 공·항만에서의 홍보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시 또는 탑승권 발매시 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 인솔자, 해외 축산행사 참가자 등에 대한 출장교육을 통하여 가급적 해외 가축사육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귀국시 해외에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킴과 아울러, 국내 도착시에도 검역을 철저히 받게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3) 사전예방을 위한 국내방역관리 강화

구제역 청정화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보완해 왔으며, 매년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범정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구제역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유입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농림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리실태와 농가의 소독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별대책 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하여 꾸준하게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00년 역학조사 결과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평가된 황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황사관리수칙”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황사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검역원간에 기상정보 전용팩스(Hot line)를 설치하여 황사 발생정보 입수시 시·군, 축산관련단체에 통보하여 축산농가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외국인농업연수생 입국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업체(220여개소)에 대하여는 공문으로써 직접 홍보하였다.

구제역 감염가축의 조기검색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준한 두수를 정하여 매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예찰활동 등 현장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가의 자율방역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일선 가축방역기관, 관련단체 방역교육을 강화하였으며, '03년에는 가축방역홍보비디오("방역은 곧 생활입니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시·도 축산관계

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축산농가, 가축중개상·사료판매상·동물약품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통한 방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3. 구제역 재발방지 방역대책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우리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입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정부에서는 해외여행객, 가축농장 방문자, 외국인농업(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축산물검색, 신발소독 등 출입국 여행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탐지견을 중국, 몽골, 러시아 등 구제역 발생 위험국가 운항노선에 집중 투입하여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최소화하고, 수입건초에 대하여는 상대국에서 소독 후 국내 도착시 다시 소독하고 건조상태, 분변 부착여부 확인등 현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외국인 농업(산업)연수생과 해외 가축농장 방문자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는 등 공·항만의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경검역만으로 완벽한 차단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전국 소독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외에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자 하는 농가에서는 철저한 휴대품 검색과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을 교육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중개상·동물약품상·사료판매상·분뇨운송자·인공수정사 등 농장출입자는 농장출입 전후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운영자 또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구제역 감염축의 조기 검색을 위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⑤